



19일 오전 제주 차귀도 서쪽 76 km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한 연승 여선 A호(29톤, 통영선적)가 침몰하고 있다

누전? 가스폭발? 아니면...
“그날밤 대성호에 무슨 일 있었나?”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조업 중 발생한 화재로 12명의 사망·실종자를 내고 전복한 갈치잡이배 대성호(29톤·통영선적) 사고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화재로 대성호 선수(선체 앞부분)와 선미가 두 동강나 선수는 침몰하고 선미는 잠겨 일부만 해상에 떠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경은 선체를 인양해 오리무중인 화재 원인과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추정할 계획이다.

도면상에는 선체 가운데 조타실과 기관실이 위치하고 있다. 조타실을 중심으로 뒤쪽에 침실과 식당이 있다.

해경이 수중수색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엔진을 비롯해서 시설 상당 부분이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숨진 선원 김모씨(58)는 얼굴을 포함해 상반신 전체에 큰 화상을 입었고 작업복이 아닌 간편한 옷차림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작업 중이 아니라 휴식 또는 자고 있다가 예측 못한 상황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선박은 냉동기 등을 하류종일 사용하는 특성상 누전·합선의 위험성이 크다.

동절기여서 난방기 사용 중 불이 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조리실에 갖춰진 가스폭발이 원인이었을 가능성도 추정한다. 김씨의 시신 상태나 대성호가 조난신호를 보내지 못했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볼 때 가스폭발도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뉴스1

방치 차량 때문에 주차선 그리다 말다...지자체 '난감'

광주 서구 매월동 공구단지 일대...무단방치차 폐차 소요 시간만 3개월



20일 오전 광주 서구 매월동 공구단지에 한 장기 방치 차량 때문에 주차선이 그려지지 못한 채 남아있다

광주 서구 매월동의 공구단지 일대는 오래 전부터 도로 곳곳을 점령한 차들 때문에 노란 주차선이 칠해졌다 끊어지길 반복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20일 오전 광주 서구 매월동 공구단지, 언제부터 이곳에 놓였는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먼지가 자욱이 쌓인 차량이 도로가에 불법 주차차돼 있다.

불법 주차 차량 앞에는 노란 주차선이 그려지다 말았다. 노란 주차선은 불법주차 차량을 건너뛰고 차 뒤부터 다시 노랗게 칠해지면서 이른바 '점자 주차선'이 됐다.

지자체가 인력을 동원해 무단투기 쓰레기를 치우는 것과 달리 방치된 차량을 치우는 작업은 꽤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걸려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지자체가 주인 잃은 방치 차량을 함부로 옮기지도 못하고 강제로 폐차시키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도색하다 보니 발생한 현상이다.

광주 서구 관계자는 "자동차 관리법에 근거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신고 제보를 받거나 자체 적발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만, 이동조치 등기 통보 20일, 1, 2차 추가 통보와 공사송달 등을 거치면 무단방치 차량을 폐차하는데 장장 3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곳이 이전부터 주차선도 없고 지자체의 단속 권한도 없어 도로 정비에 어려움이 많

은 곳이었다. 특히 인근 자동차 매상이 방치해놓은 차량이 많아 이동시켜 버리면 또 가져다 놓는 등 악행이 반복돼 무단 방치 차량이 처분이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차선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공구단지 뒷길은 수십 년 동안 방치된 폐차와 쓰레기, 절근, 콘크리트 자재, 심지어 페타이어와 소파 등이 여기저기 쌓여 있다.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전까지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이라 쓰레기를 신고와 무단투기하거나 폐차제와 부품을 버리고 가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나마 최근 매월동 뒤편에 주거 단지가 들어서 차량과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서구가 대대적인 도로 정비사업을 벌여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관리가 필요하다.

인근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52)는 "도로 한가운데에 맨홀 뚜껑이나 타이어나 방치되거나 쓰레기가 쌓여있는 것은 일상이었다"며 "수십 년 동안 민원을 넣어도 변화가 없다가 최근 정비사업으로 나아졌지만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는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벌이면서 주차선이 없어 단속이 불가능했던 도로에 불법주차 금지 주차선을 긋고 불법주차 단속 카메라도 집중적으로 설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깨끗한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현대삼호중공업-협력업체 납품비리 의혹 수사

공사대금 부풀렸다 의혹

현대삼호중공업 직원들이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수십억원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영양경찰서는 최근 현대삼호중공업이 낸 고발장을 접수하고 현

대삼호중공업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현대삼호중공업 모 부서 직원들은 모 협력업체와 LNG선 8척에 들어갈 245억원대 저장탱크 납품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20억원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삼호중공업은 내부감사를 통해 직원들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관련 직원 2명을 해고했다.

경찰은 현대삼호중공업 직원들이 계약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영양=조대호 기자

“술 더 가져와” 영세상인 괴롭힌 동네주폭 2명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무전취식과 영업방해를 일삼은 피의자 2명을 최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47)와 B씨(50)는 지난달 27일부터 11월13일까지 식당 등에서 총 4회에 걸쳐 25만2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수의 영세상인들이 동네주폭에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피해사실을 호소하자 지난 8일 병합수사를 진행해 6일 만에 이들을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이들은 만취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인근 마트와 가판 과일상, 술집 등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무전취식, 재물손괴, 영업방해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금이 없다. 술 사먹게 1000원만 달라”며 막무가내로 외상을 강요하거나 맥주병을 들고 “술을 가져오라”며 업주를 위협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수차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주정차 국민신문고 신고위해 촬영하자 폭행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한 남성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A씨(49)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쯤 광주 서구 차평동 도로에서 트럭을 이용해 식품을 팔던 중 국민신문고 앱에 신고할 목적으로 B씨(48)가 사진을 촬영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진 촬영 혐의에 B씨가 반말로 대꾸하는 것에 격분, B씨의 모자를 치고 목살을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과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순천시 아파트 화재...60대男 화상으로 병원 이송

20일 오전 1시27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60대의 A씨가 안면부와 손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안방의 이불과 의류, 창틀 등이 소실되며 소방서 추산 2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금문방서 귀금속 600만원 어치 훔친 10대 검거

금문방에서 귀금속 수백만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A군(16)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전날 오후 3시1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금문방에서 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 행세를 하며 주인의 경계가 소홀해진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쯤 세종시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교회서 전기장판 과열 화재...10대 2도화상

20일 밤 12시40분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한 교회 교육관에 불이 나 49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사고 당시 교회에는 교사 1명과 학생 14명이 있었으며, 이 중 김모군(16)이 코와 겨드랑이에 2도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홍모군(17) 등 5명은 연기흡입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한 화재로 인해 교회 내부의 침구류 등이 소실되고 벽이 그을려 소방서 추산 약 168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